

Sector Comment

K-POP Rise & Release

2025.12.09

장지혜 엔터·미디어·음식료 02-709-2336 / jihye.j@ds-sec.co.kr, 강태호 연구원 02-709-2666

K-pop R&R. 머릿속을 계속 맴도는 르세라핌의 중독성

K-pop R&R은 K-pop 아티스트의 활동 성과 및 업종 내 주요 이슈를 분석하는 자료입니다. 주목할 만한 아티스트의 성과(Rise)와 음반/투어 일정 공개 소식(Release)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였습니다.

■ 르세라핌(LESSERAFIM) 글로벌 팬덤 확대 국면 진입. 미국 내 음원/공연/활동 성과 긍정적

- 미국 음악 전문 매체 컨시퀀스(Consequence)가 발표한 '2025년 최고의 노래 200선' 중 르세라핌 노래 90위 차지
- 르세라핌 미니 5집 <HOT>(3/14 발매)의 수록곡 <Come Over>가 차트인한 것으로 한국 가수 노래 중 유일
- 또한 르세라핌은 매년 미국 ABC TV에서 12/31~1/1 방송하는 유명 새해맞이 프로그램에 출연 예정
- 르세라핌의 스포티파이 월간 청취자 수는 12/7 기준 1,719만명(+14% MoM)으로 상승 후 유지
- 25년 르세라핌 앨범 초동판매 성과는 미니 5집(3/14) <HOT> 63만장, 싱글 1집(10/24) <SPAGHETTI> 46만장
- 싱글 1집 타이틀곡 <SPAGHETTI>는 빌보드 핫100(11/8일자) 차트 50위로 차트인하며 자체 최고 성적 기록
- 르세라핌의 월드 투어 <EASY CRAZY HOT>은 25년 4월~11월 9개국 29회+26년 1/31~2/1 양코르 국내 2회
- 이중 25년 9월 진행한 북미 투어는 7개 도시 7회 아레나급 공연을 전석 매진 시키며 글로벌 팬덤 확대 증명

■ 하이브의 저연차IP 글로벌 팬덤 확대 주목. 26년 국내외 IP 레버리지 확대에 따른 실적 성장 기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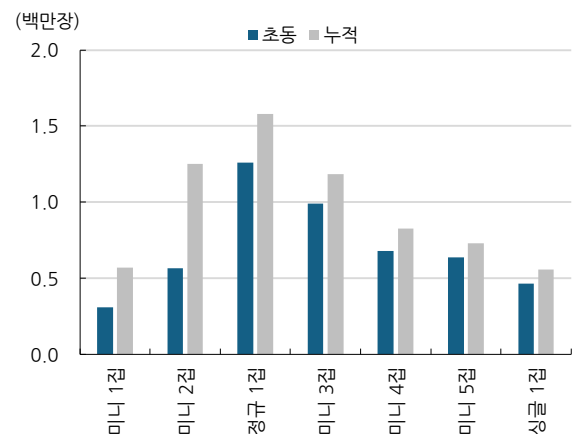
- 하이브의 주요 아티스트들은 아시아에서 미주 지역으로 빠르게 활동 반경을 넓히며 글로벌 팬덤 경쟁력 증명
- 르세라핌 외에도 보이넥스트도어, 투어스, 아일릿, 코르티스 등 하이브의 국내 저연차IP 성장세도 주목
- 엔터 업종 주가는 10월 이후 조정 국면. 26년 BTS를 비롯해 IP 레버리지 확대가 기대되는 하이브 최선호주 유지

그림1 르세라핌 싱글 1집 <SPAGHETTI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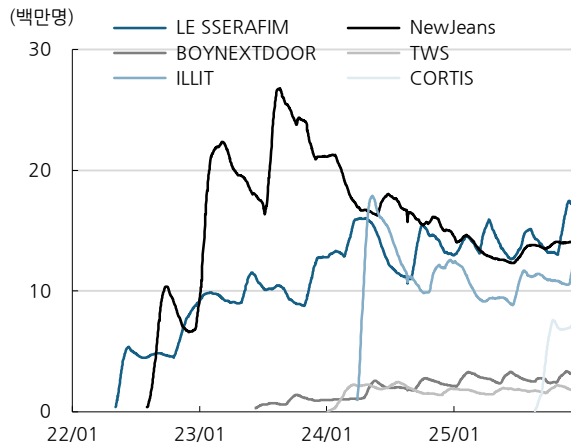
자료: 하이브,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2 르세라핌 앨범 판매량 추이(국내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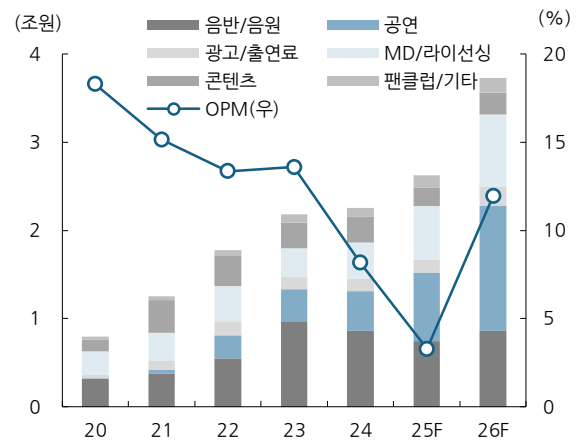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터차트, 씨클차트,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3 하이브 저연차P 스포티파이 월간청취자수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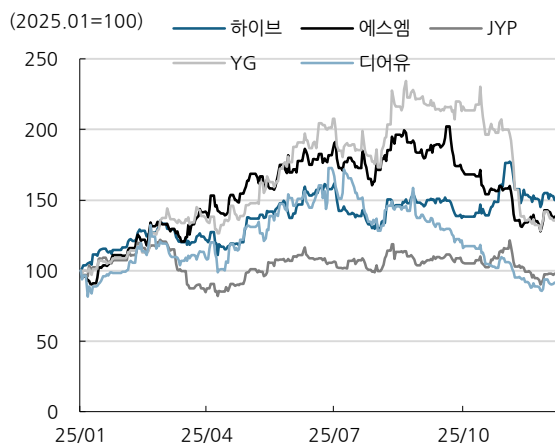
자료: Spotify,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4 하이브 실적 추이 및 전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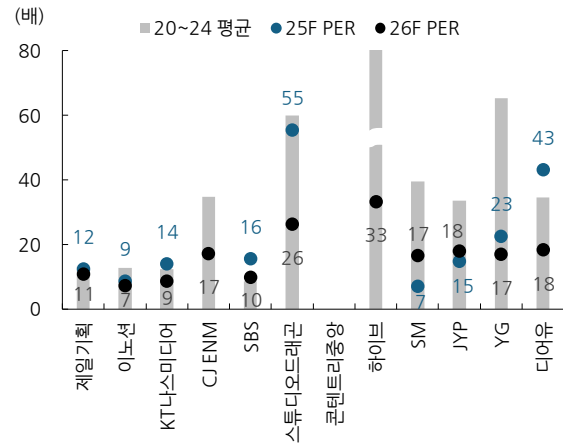
자료: 하이브,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추정

그림5 주요 엔터 기업 주가 추이



자료: FnGuide,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6 미디어-엔터 PER 밸류에이션 비교



자료: FnGuide,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
-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